



광주매일신문 마찬호 회장 취임식 및 창사 35주년 기념식이 9일 광주 L7 총장 바이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김애리 기자

“지역신문 환경 급변...제2의 도약 온 힘”

마찬호 광주매일신문회장 취임·창사 35주년 기념식

발전 동력 ‘조직원 단합’ 등 강조
광주매일인 시상·모범지구 표창
지역민 위한 ‘정론직필’ 한마음

마찬호 광주매일신문 회장이 9일 창사 35주년 기념식에서 취임 일성으로 “광주매일신문의 제2의 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오전 광주 동구 L7 총장 바이 롯데호텔 13층 연회장에서 열린 취임식 및 기념식에는 마찬호 광주매일신문 회장 부부와 김광아 광주시 양공협회 회장, 이경수 대표이사, 최재호 부사

장, 박은성 편집국장 등 광주매일신문 임직원과 남양건설 간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국민의례, 마찬호 회장 취임사, 사시 제창, 광주매일인상 시상, ‘이루자’ 구호 제창, 축하공연, 폐회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마 회장은 취임사에서 “광주매일신문 창사 35주년을 맞은 뜻 깊은 날에 회장으로 취임하게 돼 영광이다”면서 “오늘을 기점으로 제2의 도약을 선포하고, 종이신문의 한계를 뛰어넘는 온라인 매체로서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데 지혜와 노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 회장은 “본보는 지역사회의 감시자

이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신문으로서 위상을 정립해 왔다”면서 “하지만 지역신문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있는 만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선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광주매일신문 임직원 모두가 앞장서 공부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발전 방향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후 “혼자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셋이 힘과 지혜를 모아 자부심 있는 광주매일신문을 만들어가겠다”고 역설했다. 이후 박은성 편집국장의 선장에 맞춰 임직원들은 “정론직필로 지역경제 발전과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지역민의 신문이 되자”고 사시를 제창했다. 뒤이어 투철한 애사심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타의 모범이 된 ‘2026년 광주매일인’ 시상도 진행됐다.

올해 광주매일인에는 정해선 지역특집부 국장, 이육근 지역특집부 국장대우, 김동규 지역특집부 부국장대우, 박지현 업무국 부장, 임국락 경영지원국 차장, 박상진 뉴미디어부 차장대우, 주성학 지역특집부 기자, 안태호 경제부 기자가 선정됐으며 모범지구 표창은 수완지구과 첨단지구에게 돌아갔다. 시상과 표창이 끝난 뒤 마찬호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이루자’ 구호를 함께 제창하며 광주매일신문의 제2의 도약기에 뜻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끝으로 손승범 바리톤의 축하공연과 축하 락을 케팅하며 참석자들은 마 회장의 취임과 창사 35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했다. /이연성 기자

이병귀 제91대 담양경찰서장 취임
담양경찰서는 9일 “전날 이병귀(사진) 제91대 담양경찰서장이 경찰 현충탑 참배를 마친 후 경찰서 각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 후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서장은 “담양은 호남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관광지로 외부인의 유입이 많고 거주하는 주민들은 어르신 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다”며 “안전을 지키는 기본적인 임무에 충실하되 특히 어르신과 어린이, 장애인과 외국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동료가 행복한 직장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소통으로 상호 배려하는 경찰이 돼 달라”고 강조했다. 담양 출신인 이 서장은 경찰대 8기로 입문한 뒤 장흥경찰서장, 경찰대학 교무과장, 서울 구로경찰서장, 서울청 사이버수사과장, 광주청 형사과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담양=정승규 기자



목포기독병원, 헌혈자 추첨 검진권 전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최근 헌혈의 집 목포센터에서 목포기독병원이 헌혈자를 위한 종합검진권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목포기독병원은 지난 2022년부터 매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헌혈의 집 목포센터 방문자 중 추첨을 통해 종합검진권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달 한 달간 헌혈자 763명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3명에게 각각 50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권이 전달됐다. 검진권을 받은 박사환(34)씨는 “지금까지 20차례 헌혈을 했는데 뜻밖의 선물을 받아 정말 기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헌혈을 통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근호 목포기독병원장은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헌혈자들을 위한 이벤트를 통해 목포지역 헌혈문화가 확산됐으면 한다”며 “지역 내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헌혈자 지원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연성 기자



광주노동청-안전보건공단 ‘추락사고 근절’ 협약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광주본부는 9일 광주고용노동청에서 나주·담양·곡성·구례·화순·함평·영광·장성축협 등 8개 축산업협동조합과 ‘지붕공사 추락사고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축사 및 태양광 시설 지붕 개·보수 공사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채광장을 밟고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축사 지붕공사 정보를 공유하고 축사주와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추락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또 안전대 부착설비, 추락방호망, 채광장 안

전망개, 고소작업대 등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도영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축사 지붕공사 전 안전대 부착설비와 채광장 안전덮개 등 필수 안전시설을 설치해 추락 사망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축협도 안전교육과 홍보를 통해 현장의 안전의식 확산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도원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장은 “축협과의 협약으로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지원과 재정지원을 적기에 연계해 농가가 필요한 안전장비를 공사 전부터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찬용 기자



동신대 ‘생성형 AI 활용 기업분석 경진대회’ 성료

동신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최근 동산행정관 2층 세미나실에서 ‘생성형 AI 활용 기업분석 경진대회 발표회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기업분석 경험을 통해 산업과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직무별 맞춤형 취업 전략 수립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총 10개 팀이 참여했다. 참가 학생들은 팀별로 희망 기업을 선정된 뒤 전문 컨설팅을 바탕으로 산업동향과 기업 현황, 직무 분석, 채용 정보 등을 담은 기업분석 자료를 제작하고 발표회를 통해 분석 결과와

취업 준비 전략을 공유하며 열린 경쟁을 펼쳤다. 심사는 기업·산업 분석의 충실성, 생성형 AI 활용도, 취업 전략의 구체성, 발표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진행됐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한의학과 ‘기분과’ 팀이 수상했다. 기분과 팀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을 대상으로 기관의 역할과 사업 현황, 채용 동향, 직무별 역량 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민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이번 경진대회가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기업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만의 취업 전략을 수립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GIST-코너스톤엔컴퍼니 ‘AI 선도·해외 진출’ 맞손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은 “전날 교내 행정동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 전문기업 ㈜코너스톤엔컴퍼니와 대한민국 AI 산업 발전 및 글로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임기철 총장과 임원택 R&D혁신기획본부장, 이정석 ㈜코너스톤엔컴퍼니 대표이사, 정태범 본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중남미 국가 코스타리카의 공공 안전과 관광객 안전 강화를 위한 AI 기반 치안 플랫폼 구축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현지 적용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GIST는 ▲해외 정부·공공기관과의 국제협력 지원 ▲AI·스마트시티 분야 연구 및 기술 협력 ▲국제공동연구와 산학협력 프



로그랩 운영 ▲AI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공공 프로젝트 추진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코너스톤엔컴퍼니는 ▲해외 정부 및 기관 대상 기술 제안과 사업 추진 ▲AI 영상분석·데이터 플랫폼·클라우드 시스템 개발 및 운영 ▲해외 신규 사업 발굴 및 글로벌 전략 수립 ▲프로젝트 관리(PM)와 기술 지원 등을 수행한다. /박선욱 기자

여수경찰-약사회 ‘교통안전 문화 확산’ 협약

여수경찰서는 지난 8일 여수시약사회와 ‘교통안전 문화 확산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생활 밀착형 홍보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위험성이 대두된 약물 복용 후 운전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협약에 따라 참여 약국에는 약물안전 예방 포스터와 물티슈, 부채 등 실용적인 교통안전 홍보물이 비치된다. 시민들은 약국 방문 시 졸음이나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의약품 복용 후 운전 주의사항을 안내 받으며, 아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무단횡단 금지 등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보행 안전 수칙도 함께 전파할 예정이다. /여수=김진선 기자



광주 북부경찰, 침수피해 우려지역 점검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대비해 관내 지하차도, 침수우려도로 등 재난취약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후변화로 예측이 어려워진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에서는 특히 과거 집중호우 발생에서 인명피해 및 침수이력이 있는 취약지역을 집중 방문해 현장 위험요인을 사전점검하고 대응체계를 재확인했다. 북부경찰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협업을 강화하는 등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양백승 북부경찰서장은 “관내 침수우려지역 등에 대한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재난에 대비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찬용 기자

부음
▲정병준씨 별세, 정성필(전 광주일보 기자)씨 부친상=발인 10일(수) 오전 9시 구례군 구례명원장례식장(061-783-4344).
▲황경득씨 별세, 백재훈(광주MBC PD)씨 장인상=발인 11일(목) 오전 9시 광주 VIP장례타운 VVIP 101호(062-521-4444).